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장현정, 이정화*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Hyun-Jung Jang, Jeong-Hwa Le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 중인 228명을 편의표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첫 희망진로, 취업준비정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순이었으며,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예방, 대처 및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가를 위한 차별화된 취업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학생,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f Job-Seeking Stress. A convenience sample of 228 nursing students was conducted from in three departments of nursing.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21.0 program.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lower the Job-Seeking Stress. The factors influencing Job-Seeking Stress were social support, first hope career, job readin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for Job-Seeking Stress was 19%.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ope with, and mitigate the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differentiated Career education programs to increase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Converge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통계청의 청년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청년 실업률은 2016년 9.8%에서 2019년에 8.9%로 감소하였고, 고

용률은 2016년 41.7%에서 2019년 43.5%로 상승함으로 나타났다[1]. 그러나 청년층의 인구감소, 온라인화 및 무인화 확산 등 인구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은 어려운 실정이다[1]. 대학생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중

*Corresponding Author : Jeong-Hwa Lee(awhjeong@naver.com)

Received July 28,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Revised September 7,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비중 높은 취업스트레스의[2] 비효과적 해소는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고[3], 간호학생의 경우도 정신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잠재적으로 안고 간다[4].

다수의 간호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업의 용이·전문·안전성 등이나, 간호학과 신설 및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이 강화되는 경쟁사회 속에서 [5] 이들의 취업스트레스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6]. 이에 간호학생들은 본인의 희망 기관 취업을 위한 학점관리, 토익, 관련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7], 해외 어학연수나 국내의 봉사활동 등과 같은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전공분야에 대한 생소함, 엄격하게 편성된 교육과정, 과중할 정도의 학습량,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 국가고시 준비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 다방면에 걸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4,7].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감 결여와 비합리적 취업준비 과정으로 건강한 대학생활을 보낼 수 없다[8]. 특히 구직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있는 고학년 학생들은 저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9], 이에 대한 관심과 이를 토대로 한 실증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지지 망을 통해 실제상황에서 제공받는 지지 수준과 사회 네트워크의 구성원을 통해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수준으로[10], 진로관련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적극적인 진로행동 가능성을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11]. 사회적 지지가 낮은 개인이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면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12], 취업스트레스로부터의 우울 및 절망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이를 완화시키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3]. 사회적 지지는 간호학생의 학업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방안으로 보고되었고[4],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활용 및 대처는 스트레스에 긍정적·낙관적 관점을 나타낸다[14]. 이에,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자원으로 정신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취업스트레스 등 다양한 차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12].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이다[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본인이 성공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여 직장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가지는 자신감의 수준을 의미한다[16].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 탐색, 선택 및 적응 행동에 정적인 관계가 있고[6], 사회적지지, 취업준비정도나 취업성공에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17]. 간호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성찰 부족현상과 취업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부족한 경우 취업된 후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이직으로 이어지게 된다[8,18]. 이는 간호 서비스 질 하락과 의료인력 양성의 비용 손실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간호학생의 취업진로에 대한 탐색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및 학과 차원의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18]. 또한, 간호학생에게 간호사의 다양한 취업분야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으로 스스로에게 진로결정과 적절한 취업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고학년 간호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3, 4학년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고학년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예방, 완화와 대처전략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련성 규명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와 G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4학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05, 검정력($1 - \beta$)=.95, 효과크기(ES)=.15로 산출한 결과 189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목적의 이해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응답자 240명 중 설문 응답 미비, 누락된 설문 응답자 등 부적절한 응답자 12명을 제외한 총 228명의 자료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Park[10]이 개발한 도구를 Kim[19]이 수정·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의 4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6이었다.

2.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와 Taylor[11]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SES-SF)을 Lee[20]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목표선택 11문항, 문제해결 3문항, 직업정보 6문항, 미래계획 5문항의 4개 하위요인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였다.

2.3.3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 (Connell Medical Index: CMI)을 기반으로 한 Hwang[21]의 도구를 Kang[2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성격 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 5문항, 학업 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 스트레스 3문항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이었다.

2.4 자료수집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K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KW-2018-14)을 받은 후 시행하였고, 2018년 10월 26일부터 11월 04일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 가능하며, 모든 자료는 익명 전산 처리 후 연구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4) 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3학년이 194명(85.1%), 성별은 여자가 199명(87.3%), 연령은 20-24세가 207명(90.8%)으로 가장 많은 분포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중위권 148명(64.9%)이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호함이 119명(52.2%), 보통이 102명(44.7%), 대인관계는 만족함이 149명(65.4%), 보통이 77명(33.8%)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동기는 졸업 후 높은 취업률이 85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적성과 취미가 맞

음이70명(30.7%),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가 45명(19.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보통 이상 높다가 209명(9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취업 준비정도는 보통이다가 115명(50.4%)으로 가장 많았다. 첫 희망진로는 병원간호사가 197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간호직공무원 25명(11.0%)이었다. 취업영향요인은 본인의 의지나 계획, 목표가 122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순수한 실력이 69명(30.3%), 학교 교수의 지원이 12명(5.3%)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8)

Variable	Categories	n(%)
Grade	3	194(85.1)
	4	34(14.9)
Gender	Male	29(12.7)
	Female	199(87.3)
Age	20-24	207(90.8)
	25 ≤	21(9.2)
School grades	good	53(23.2)
	moderate	148(64.9)
	bad	27(11.8)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19(52.2)
	Average	102(44.7)
	Fragile	7(3.1)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149(65.4)
	Moderate	77(33.8)
	Dissatisfied	2(0.9)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consider high school grades	23(10.1)
	aptitude and hobbies	70(30.7)
	High employment rate after graduation	85(37.3)
	parent or teacher's recommendation	45(19.7)
Satisfaction with major	other	5(2.2)
	Very high	21(9.20)
	high	94(41.2)
	Moderate	94(41.2)
	low	13(5.7)
Preparation for job seeking	Very low	6(2.6)
	Very high	19(8.3)
	high	43(18.9)
	Moderate	115(50.4)
First hope career	low	49(21.5)
	Very low	2(0.9)
	Hospital nurse	197(86.4)
	Nursing officials	25(11.0)
Factors affecting job seeking	Health teacher	2(0.9)
	Industrial nurse	4(1.8)
	Pure skills	69(30.3)
	Will planning, goal	122(53.5)
	Socio-economic background, social network	10(4.4)
	School reputation	8(3.5)
	School professor support	12(5.3)
Senior's help	2(0.9)	
other	5(2.2)	

3.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평점 3.84±0.75점이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 3.36±0.8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평점 2.54±0.50점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Mean scores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N=228)

Variable	Min	Max	M±SD
Social Support	3.56	4.05	3.84±0.7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04	3.62	3.36±0.82
Job-Seeking Stress	1.97	3.28	2.54±0.5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학년($t=-2.26, p=.024$), 주관적 건강상태($F=5.75, p=.004$), 대인관계($F=28.21, p<.001$), 전공만족도($F=7.62, p<.001$), 취업영향요인($F=2.37, p=.03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았다. 또한,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 불만족인 경우보다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전공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수한 실력이 취업영향요인에 있어서 취업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년($t=-3.33, p=.002$), 연령($t=-2.12, p=.035$), 학업성적($F=6.80, p<.001$), 주관적 건강상태($F=5.39, p=.005$), 대인관계($F=7.11, p<.001$), 전공 선택동기($F=2.49, p=.044$), 전공만족도($F=11.61, p<.001$), 취업준비정도($F=6.8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고, 25세 이상 연령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학업성적은 상위권이 중위권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양호한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대인관계는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보통 이하 낮은 경우보다, 취업준비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보통 이하 낮은 경우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정도($F=2.44, p=.048$), 첫 희망진로($F=3.17, p=.025$), 취업영향요인($F=2.23, p=.04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준비정도가 높은 경우가 보통 이하 낮은 경우보다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또한 첫 희망 진로가 병원간호사 또는 간호직 공무원인 경우가 보건교사나 산업 간호사 희망인 경우보다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취업영향요인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인맥에서 취업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3.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사회적 지지($r=-.37,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29,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45,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N=228)

Variable	Job-seeking stress	Social support
	r(p)	
Social support	-.37(<.001)	1
Career decision - making self-efficacy	-.29(<.001)	.45(<.001)

3.5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낸 취업준비정도, 첫 희망 진로, 취업영향요인과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4.38, p<.001$),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beta=-.30, p<.001$), 첫 희망 진로($\beta=.15, p=.016$), 취업준비정도($\beta=-.16, p=.0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16, p=.016$)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19% 설명하였다.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Job-Seeking Stress (N=228)

Variable	β	t	p	Adjusted R2	F
Social support	-0.30	-4.56	<.001	0.13	14.38*
First hope career	0.15	2.44	0.016	0.16	
Preparation for job seeking	-0.16	-2.57	0.011	0.17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0.16	-2.43	0.016	0.19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취업준비 구체적 전략이 필요한 3·4학년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2.5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4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Ahn과 Kim[23]의 연구와 졸업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Jung[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1-4학년 무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22]의 연구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별 차이 및 조사 시기에 따른 결과의 차이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저학년의 경우에는 막연한 취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4학년 초기의 경우에는 2학기 국가고시 대비 전 취업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취업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을 것이다.

Table 3. Differences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28)

Variable	Categorie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Grade	3	3.81±0.52	-2.26 (.024)		3.97±0.44	-3.33 (.002)		2.31±0.60	1.32 (.189)	
	4	4.03±0.64			4.32±0.59			2.16±0.74		
Gender	Male	3.84±0.60	-0.04 (.971)		4.09±0.64	0.88 (.380)		2.24±0.80	-0.35 (.726)	
	Female	3.84±0.54			4.01±0.45			2.29±0.60		
Age	20-24	3.83±0.55	-0.79 (.427)		4.00±0.49	-2.12 (.035)		2.29±0.62	0.20 (.845)	
	25 ≤	3.93±0.53			4.23±0.32			2.26±0.71		
School grades	good ^a	3.98±0.54	2.53 (.082)		4.22±0.49	6.80 (<.001)	a)b	2.14±0.69	2.01 (.136)	
	moderate ^b	3.81±0.53			3.95±0.44			2.34±0.60		
	bad ^c	3.75±0.60			4.03±0.56			2.31±0.62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a	3.93±0.55	5.75 (.004)	a)c	4.12±0.46	5.39 (.005)	a)b	2.26±0.69	1.38 (.253)	
	Average ^b	3.77±0.51			3.91±0.46			2.34±0.54		
	Fragile ^c	3.33±0.58			4.02±0.80			1.97±0.50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a	4.01±0.49	28.21 (<.001)	a)b,c	4.10±0.44	7.11 (<.001)	a)b	2.24±0.62	1.54 (.216)	
	Moderate ^b	3.53±0.48			3.87±0.52			2.38±0.63		
	Dissatisfied ^c	2.98±0.14			3.66±0.08			2.52±0.16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consider high school grades	3.82±0.59	0.18 (.947)		4.08±0.46	2.49 (.044)		2.32±0.62	2.10 (.082)	
	aptitude and hobbies	3.88±0.56			4.11±0.49			2.18±0.67		
	High employment rate after graduation	3.83±0.54			4.01±0.45			2.42±0.60		
	parent or teacher's recommendation	3.81±0.51			3.91±0.43			2.23±0.53		
	other	3.73±0.63			3.57±1.03			1.93±0.80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high ^a	4.02±0.61	7.62 (<.001)	a,b,c,d	4.46±0.59	11.61 (<.001)	a,b)c,d,e	2.18±0.82	1.70 (.150)	
	high ^b	3.97±0.52			4.10±0.42			2.21±0.60		
	Moderate ^c	3.76±0.50			3.93±0.40			2.32±0.57		
	low ^d	3.21±0.44			3.66±0.34			2.64±0.50		
	Very low ^e	3.69±0.40			3.46±0.85			2.42±0.96		
Preparation for job seeking	Very high ^a	4.17±0.36	2.29 (.061)		4.49±0.57	6.89 (<.001)	a)c,d	2.26±0.91	2.44 (.048)	a,b)c,d,e
	high ^b	3.87±0.59			4.10±0.44			2.32±0.57		
	Moderate ^c	3.81±0.55			3.98±0.45			2.20±0.59		
	low ^d	3.75±0.51			3.87±0.44			2.44±0.56		
	Very low ^e	3.74±0.48			3.74±0.65			3.20±1.25		
First hope career	Hospital nurse ^a	3.85±0.56	0.98 (.401)		4.03±0.50	1.43 (.240)		2.25±0.62	3.17 (.025)	a,b)c,d
	Nursing officials ^b	3.71±0.49			3.88±0.38			2.58±0.55		
	Health teacher ^c	4.30±0.14			4.50±0.08			1.52±0.61		
	Industrial nurse ^d	3.84±0.33			4.02±0.20			2.44±0.39		
Factors affecting job seeking	Pure skills	3.94±0.53	2.37 (.031)		4.08±0.49	1.39 (.220)		2.30±0.65	2.23 (.042)	
	Will planning, goal	3.86±0.54			4.04±0.48			2.20±0.57		
	Socio-economic background, social network	3.47±0.62			3.78±0.48			2.74±0.50		
	School reputation	3.80±0.48			3.97±0.57			2.38±0.71		
	School professor support	3.71±0.39			3.91±0.34			2.65±0.73		
	Senior's help	3.20±0.74			3.86±0.37			2.09±1.48		
	other	3.40±0.69			3.62±0.55			2.53±0.63		

또한, 타 전공 대학생들에 비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 진로가 비교적 뚜렷한 직무 전문성을 지닌 간호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가 일개대학의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조사 시기 및 대상자별에 따른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취업준비정도, 첫 희망진로, 취업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준비정도가 높은 학생이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8,13]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종별은 상이하지만 나름대로의 취업스트레스는 경험하고 있고[9], 취업영향요인으로 본인의 의지나 계획, 목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간호학생 개별적 맞춤형 지도와 취업스트레스 완화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5점 만점에 3.8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지지를 실증 검증한 선행연구[4,7,12]와 유사하거나, 약간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친구, 가족, 교수 등 지지자원의 사회 환경이다[10]. 개인의 사회적 지지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촉진과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 스트레스에 대한 고통과 인식의 심각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7,10,26], 사회적 지지는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취업영향요인에서 학교의 지명도와 학교교수 지원정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지도교수 및 취업진로 담당교수의 멘토링 역할과 대학과 학과차원의 사회적 지지 유지 향상을 위한 전략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3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학년 및 전 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7,9,18,2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적성과 취미가 맞아 스스로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 보고한 Lee 등[25]의 연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향상[25]과 간호학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취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미래계획 점수가 가장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별 대학일자리 센터 등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특강 등 취업진로 로드맵 등을 활용한 취업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학년 간호학생은 이론과 임상 실습 등의 여유없는 교육과정 이수로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졌다. 이는 진로장벽이 낮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7,12,17,27]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취업준비정도, 첫 희망진로, 사회적 지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이 높고, 적극적일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고, 두 변수의 관계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함을 보고한 Kim[27]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캠프와 현장전문가의 실전 면접 등을 활용한 진로능력 강화프로그램[8]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취업을 앞둔 고학년보다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대로 인한 자기 주도적 취업역량 강화와 더불어 심리상담 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회적 지지 획득이 추가된다면 간호학생의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차별화된 취업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간호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취업스트레스 영향 요인 확인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준비정

도, 첫 희망진로,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스트레스를 19%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간호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이들 변수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효과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위한 조사 대상 확대와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0). *Youth employment trend (employment rate and unemployment rate)*. Statistics Korea (Online). http://www.index.go.kr/potal/main/%20%20%20EachDtlPageDetail.do?id_x_cd=1495
- [2] M. H. Choe et al. (2015).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2), 122-131.
DOI : 10.5807/kjohn.2015.24.2.122
- [3] S. P. Behere, R. Yadav & P. B. Behere. (2011). A comparative study of stress among students of medicine, engineering, and nursing. *Indian Journal of Psychological Medicine*, 33(2), 145-148.
DOI : 10.4103/0253-7176.92064
- [4] Y. K. Yang, K. S. Han, M. H. Bae & S. H. Yang. (2014).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1), 23-33.
DOI : 10.17547/kjsr.2014.22.1.23
-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Measure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of nurs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line). http://www.mohw.go.kr/react/a1/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4262
- [6] K. A. Lee & J. H. Kim. (2015).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2(1), 42-49.
DOI : 10.16952/pns.2015.12.1.42
- [7] H. J. Choi & K. I. Jung. (2018).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1), 61-72.
- [8] Y. H. Kim. (2013).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2), 817-828.
- [9] E. K. Ahn. (2018).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on senior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perspectives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365-372.
- [10] J. W. Park.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1] N. E. Betz, K. L. Klein & K. M. Taylor.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DOI : 10.1177/106907279600400103
- [12] O. S. Oh. (201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 mo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5), 107-130.
- [13] I. K. Seo & Y. S. Lee. (2015).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nd despair: control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2(1), 117-147.
- [14] C. Gibbons, M. Dempster & M. Moutray. (2008). Stress and eu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1(3), 282-290.
- [15]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16] K. M. Taylor & N. E. Betz.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DOI : 10.1016/0001-8791(83)90006-4
- [17] K. H. Kim. (2018).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3), 399-408.
DOI : 10.5392/JKCA.2018.18.03.399
- [18] G. H. Kim & E. H. Hwang. (2016).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436-445.
DOI : 10.5762/KAIS.2016.17.2.436

- [19] Y. S. Kim. (1995).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0] E. K. Lee. (2001).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1] S. W. Hwang. (1998).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22] Y. R. Kang. (2006).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 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 [23] S. M. Ahn & K. H. Kim. (2018).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555-565.
DOI : 10.5762/KAIS.2018.19.1.555
- [24] S. A. Yang. (2017). Convergenc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71-183.
DOI : 10.22156/CS4SMB.2017.7.4.171
- [25] J. W. Lee, N. Y. Lee & Y. S. Eo. (2018).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311-320.
DOI : 10.5762/KAIS.2018.19.1.311
- [26] J. Y. Lee & W. Y. Choi.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3), 1481-1499.
- [27] M. O. Ki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ion effect of decision-making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장 현 정(Hyun-Jung Jang)

[정회원]



- 2006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만성질환
- E-Mail : jangah74@hanmail.net

이 정 화(Jeong-Hwa Lee)

[정회원]



- 2003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석사)
- 2018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노인간호
- E-Mail : awhjeong@naver.com